불교계 자비손길로 화마 휩쓴 상처 보듬다

진우 스님, 피해 현장 상황 점검
종정 성파 대종사, 고운사 신도 격려
복구 위한 자원봉사자 발길 이어져
상진 스님, 희생자 넋 기리며 참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불교계 곳곳에서 자비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 수장들은 현장과 분향소 등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6일 이번 화마로 전소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를 비롯해 피해 현장 곳곳을 방문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사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청송대전사로 장소를 옮겨 피해를 확인하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도 3월 28일 고운사를 찾아 주지 등운 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10시 고운사에 도착한 성파 대종사는 바로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대웅전은 화마 속에서 타지 않고 꿋꿋이 남겨진 곳이기도 하다. 마침 대웅전에서 기도하던 불자들을 만난 성파 대종사는 불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성파 대종사는 "불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물이 없어도 살지 못하지만 과하면 이들은 마(魔)가 된다"면서 "불이 화마로 변해 산천초목을 모두 태우고 소멸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지나치면 화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에너지도 과하면 마음의 불이 난다"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마음을 잘 다스려 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교에선 마음이 부처라 한다"며 "마음을 잘 쓰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 변함없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에게도 "화재로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사부대중과 합심해 부처님 도량을 복원하고 앞으로 수행 잘하고 잘 지켜 나가면 된다"고 격려했다.

대웅전 참배 후 성파 대종사는 타버린 가운루와 연수전 등 도량 곳곳을 살펴보며 상황을 살폈다. 사찰이 불타는 가운데, 선원스님들이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몸을 피했던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보고받은 스님은 이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운사는 4월 6일부터 정기 법회를 재개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비의 등불을 밝힐 계획이다. 또 봉축을 위한 예산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기로 했다. 매년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진행해온 1080배 정진 모금운동도 이재민 돕기 모금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운사에 따르면 경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능인학원과 대한불교청년회, 포항 죽림사 신도들, 경북경찰청 보현불자회 등에서 100여 명이 고운사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봉사자들은 구역별로 나눠 사찰 주변 환경정화활동과 대중공양 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포항 죽림사는 밥과 김치 등 3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영남 산불 피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상진 스님은 4월 1일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설치된 영남권 산불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종단 지도부 및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산불로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안동 월봉사 주지를 위문하고 신도 대표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산불 발생 직후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필품을 전달했고 맞춤형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최악 산불에 보물 전각 전소·불상 훼손

4월 1일까지 피해 집계 결과
영남 사찰 6곳 산불에 피해
불교유산 9건 화마에 훼손돼
발빠른 성보 이운 피해 최소화
국가유산청 "복구계획 수립"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영남 지역 산불의 진화가 이뤄진 가운데 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의 피해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가유산청이 4월 1일까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찰은 의성 고운사·운람사·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 등 총 6곳이며, 불교문화유산(국가지정유산, 경북유형문화유산) 9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찰은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다. 고운사는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비화(飛火)로 인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다. 소실된 전각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포함됐다. 이후 조사결과 보물인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의 대좌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앞서 의성 운람사는 3월 23일 확산된 산불로 모든 전각이 소실됐다. 이번 화재로 전각과 부속 건물 7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주변 산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운람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은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삼존불, 탄생불, 신중탱화 등 불교유산을 조문국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비구니 사찰 청송 보광사는 만세루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보광사 극락전은 화마를 피했다.

의성 만장사는 3월 26일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됐으며, 나머지 두 동의 건물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유형문화유산인 만장사 석조여래좌상은 방염포로 포장해 일부만 훼손됐다.

안동 용담사의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은 소실됐으며, 청송 수정사는 요사채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경북유형문화유산) 또한 전소됐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위험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유지하고, 소산된 문화유산들은 상황 종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 상태를 점검한 후 본래 위치로 이송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피해규모, 시급성, 추가훼손 방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소실 및 피해 입은 국가유산의 보수·복원 등에 긴급보수비 및 국가유산 보호기금의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산불 피해 지원 릴레이 성금 기탁 잇따라

교구본사協 3억 6천만원
중앙신도회 2억 4천만원
현대불교신문사 1천만원

대형 산불로 거주처를 잃은 이재민 지원과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는 3월 31일 의성 고운사를 방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기금 3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불교계의 응집을 강조한 전국교구본사협의회 수석부회장 덕조 스님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불교계가 힘을 모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전국교구본사에서 한마음으로 도와주기에 금방 원상복구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면서 "지역과 사찰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전국교구본사협의회 스님들은 이후 의성군재난본부를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산불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에 힘을 보탰다. 은해사는 별도로 3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소실된 전각과 문화재 복구, 스님 및 지역민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 마련, 재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은 고운사를 직접 찾아 복구를 위한 따듯한 마음을 보탰다. 스님들은 4월 1일 주지 등운 스님에게 '고운사 산불 피해 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광장 대표회장이자 화엄1회 회장 만당 스님을 비롯해 화엄2회 회장 선광 스님, 화엄3회 회장 삼조 스님, 비구니 종책모임 회장 정운 스님 등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함께했다.

만당 스님은 "산불 피해 복구에 한 창인 고운사가 하루 빨리 복원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3월 31일 진우 스님에게 신도회 회장단과 교구신도회, 신도단체들이 십시일반한 모연금 2억 3945만 1285원을 전달했다. 중앙신도회는 4월 30일까지 기금 모연을 지속해 추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기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들도 같은 날 1000만원을 전달하며 긴급모금에 힘을 보탰다. 진우 스님은 발 빠르게 모금에 동참해 준 현대불교신문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발행인 혜도 스님은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명우 대표는 "사찰이 여법하게 복구되는 데 현대불교신문도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도 4월 1일 2000만원을 전달하며 영남지역 전소 사찰의 빠른 복원과 이재민 지원을 염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3월 31일 경북 의성 소재 의성체육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만나 산불 진화에 필사의 노력을 해준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피해 복구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천태종은 이어 진우 스님을 찾아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2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4월 1일 경북 사랑의 열매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진여원 1500만원, 법보신문이 416만원 등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스님들이 산불피해 복구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도 산불 피해 복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쌍계사 ssanggyesa
차 tea culture 문화
대축전 festival
2025. 04.17(목) ~04.20(일)
미래를 향한 향기로운 여정
雙磎寺

4월 17일 개원채다
4월 18일 다도의례 및 진감 초의 고산 다맥전수식
4월 19일 茶-디카시를 만나다 축하행사 및 시상식
K-pop 축하공연 - 트리플 에스
4월 20일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하는 K-어울림 콘서트

